

구속 하위 9%인 류현진이 ML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

“(구종을) 잘 섞어 던진다.”, “(타자들이) 예측하기 어렵다.”, “기복 없이 꾸준하다.”, “어느 카운트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의 피칭을 이야기할 때면 하는 말이다

류현진의 올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은 90.6마일(145.8km),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서 하위 9%에 속한다. 그럼에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유일의 1점대 ERA(1.45), 조정 평균 자책점 284(ML 역대 3위)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이다. 공은 빠르지 않지만, 류현진만의 특출난 장점이 있기에 가능하다.

14일 'OSEN'에 따르면 미국 매체 SB네이션의 '비온드 더 박스 스코어'는 전날 "류현진은 독특한 에이스(an unconventional ace)다. 90마일(144.8km) 직구의 투수가 올해 최고 투수다."라며 류현진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비온드 더 박스 스코어'가 꼽은 류현진의 그 특별한 능력은 ●피치 믹스(구종 섞어던지기) ●다른 투수들과는 정반대인 무브먼트 ●(구종이 달라도)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들이다.

이 매체는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구사하는

좌투수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좌투수는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을 잘 안 던지고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를 잘 안 던진다. 그러나 류현진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5개의 구종을 던지는데, 좌우타자에 상관없이 5개 구종을 모두 골고루 섞어 던진다.”며 류현진의 피치 믹스를 주목했다.

이 매체는 또 평균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것도 낮설기에 타자들의 혼란시키기에 장점이 된다. 평균에 가까운 수치가 아닌, 높거나 아예 낮은 수치가 타자를 공략하는데 좋다.”며 류현진의 피치 무브먼트를 또다른 능력으로 꼽았다.

구종이 달라도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도 이 매체가 꼽은 류현진의 특별한 능력이다.

직구와 팔꿈치를 비틀어 던지는 변화구는 약간씩 던지는 폼이 다르기 마련이다. 투수는 얼마나 그 차이를 줄이고 일관된 투구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이 다르면, 타자는 구종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비온드 더 박스 스코어'는 “류현진은 독특한 무브먼트를 지닌 5개의 구종을 잘 섞어서 정확히 같은 릴리스 포인트로 던진다. 류현진의 공을 잘 치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류현진의 대응책은 공을 세계 치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전했다.

2019-2020시즌 중계 가장 많은 팀은 LA 레이커스

어떤 스포츠를 막론하고 어느 팀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방송 중계이다. 미국 프로농구(NBA)도 인기에 따라 팀별로 그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이날 오는 10월23일 시작하는 2019-2020 NBA 중계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국 방송(ESPN, TNT, ABC) 중계가 잡혀 있는 팀은 LA 레이커스이다. 레이커스는 82경기 중 총 31경기가 전국 중계로 잡혔다.

레이커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서 지역 라이벌인 LA 클리퍼스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섰던 팀이다. 지난해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한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올스타 선수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기존에도 전국적인 인기를 끌던 팀이었는데, 제임스와 데이비스가 한 팀에서 뭉치게 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FA 최대어였던 카

와이 레너드를 품고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에서 폴 조지까지 트레이드로 데려온 클리퍼스도 26회의 중계가 잡혀 많은 관심을 증명했다.

레이커스 다음으로 많은 전국 방송 중계가 잡힌 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다. 골든스테이트는 총 30회의 중계가 잡혔다. 지난 5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던 팀인 만큼 그 인기는 여전하다. 이 밖에 휴스턴 로키츠(26회), 보스턴 셀틱스(25회), 밀워키 벅스(24회)등도 많은 전국 중계가 잡혔다.

반대로 성적도 나쁘고 인기도 없는 구단들은 중계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시카고 불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은 전국 방송이 1번씩만 편성됐다. 반면 지난 시즌 서부콘퍼런스 13위에 그쳤고 인기도 많았던 뉴올리언스의 경우 전국 중계가 20번 잡혔다. 올해 NBA 신인드래프트 뉴올리언스가 전체 1순위로 뽑은 자이온 윌리엄슨(19)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PGA투어 선수들은 첫 우승 상금으로 무엇을 샀을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우승 상금은 어마어마하다. 우승 한 번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가장 적은 우승 상금이 걸린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도 79만2천달러의 우승 상금을 지급한다.

정규 대회에서 우승 상금이 110만 달러 미만은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을 포함해 취리히 클래식(105만 달러), 존 디어 클래식(108만 달러)등 3개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PGA투어에서 큰돈을 번 선수 상당수가 우승 상금으로 자동차부터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PGA 투어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우승 선물은 자동차였다.

세계랭킹 125위인 잭 존슨(미국)은 2003년 2부 투어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기점으로 BMW 승용차를 구매했던 인연으로 BMW 홍보대사가 됐다. 그는 “이제 돈 주고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세계랭킹 24위 마크 리슈먼(호주)은 2017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받은 우승 상금으로 포드 F150 랩터 트럭을 샀다. 그는 “아이들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아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사라’고 말했다.”며 “우승 상금으로 내 뒷으로 뒀산 건 그때 한 번뿐이다. 나는 원하는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12일 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 정상에 섰던 패트릭 리드(15위·미국)은 우승 기념으로 빨간색 람보르기니를, 토니 피나우, 브라이언 디샌보, 버바 왓슨, J.J. 스폰, 케빈 스트릴먼(이상 미국) 등도 우승 상금으로 자신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했다.

특이한 물품을 구매한 선수들도 있다. 2011년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심프슨과 2012년 페덱스컵 우승자 브랜트 스넬데케이(상 미국)는 최신형 제방기를 구매해 눈길을 끌었고 2001년 유럽프로골프투어 신인왕에 올랐던 폴 케이시(잉글랜드)는 롤렉스 시계를, 조던 스피스(미국)는 멕시코와 바하마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시니어 투어에서 주로 뛰는 데이비스 러브 3세는 첫 우승 상금으로 아내에게 줄 반지를 구입했다.

www.suhlaw.com
info@suhlaw.com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I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6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